

보도해명자료 (‘19. 3. 23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가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의 지진 촉발 가능성에 대해
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물 주입을 재개한 바 없음

(조선일보 3.23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◇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과정에서, 정부가 지진 발생 위험도 조사 후
문제없음 결론을 내리고 물 주입을 계속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

◇ 3월 23일 조선일보, <정부, 포항 지진 3개월 전 위험성 검사 8일간 조사후
‘문제없음’...계속 물 붓기>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□ 정부가 지열발전소의 지진 촉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
위험성 조사를 했지만 ‘문제없다’는 결론을 내린 후 지하 물 붓기를 계속

○ 조사와 관련해 정부 부처에서 보고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
없었음

□ 그 해(2017년) 9월 지열발전소의 시험가동이 재개되었음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과정에서, 정부가 지진 발생 위험도를 조사하여
‘문제없음’ 결론을 내리고 물 주입을 계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

○ 지열발전 기술개발 주관기관인 (주)넥스지오는 규모 3.1 지진 발생 당시
자체 매뉴얼에 따라 바로 배수조치(‘17.4.15)하였으며,

－ 전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, 정부 등에 조치현황을 보고하였음

○ 이후 (주)넥스지오는 기술개발 참여기관인 서울대학교, 한국지질자원연
구원 등과 논의하여 물 주입 재개여부를 결정한 것으로,

－ 물 주입 재개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님

□ 한편, ’17.9월에는 물 주입 등 기술개발이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고,
지열발전을 위한 발전시설이 완공되기 전으로,

－ 지열발전소가 시험가동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않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 장(044-203-5360)
조우신 사무관(044-203-5358)